

이야기 카드 1

비켜 주지 않는 내 자리

쉬는 시간마다 윤슬이가 도하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. 종이 쳐도 늦게 비켜 줘서 도하는 매번 책상 옆에 서서 기다린다. 도하는 아직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.

A 도하 B 윤슬 **지켜본 사람** 옆자리 태오



이야기 카드 2

내 아이디어였는데

모둠 발표에서 태오가 세아의 아이디어를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설명했다. 선생님이 칭찬하자 태오는 쑥스럽게 웃었고, 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

A 세아 B 태오 **지켜본 사람** 같은 모둠 윤슬



이야기 카드 3

단톡방 별명

반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도하를 '거북이'라고 부르며 장난을 친다. 다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도하는 그 별명이 싫다.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고 결국 'ㅋㅋ'만 보냈다.

A 도하 B 별명을 처음 쓴 세아 **지켜본 사람** 웃음 이모티콘만 보낸 태오